

경제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스펙은 점점 높아지지만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결혼 자금 모으기는 이미 포기한지 오래다. 취업 준비하느라 연애는 해본지 오래됐고, 내 인생에도 해를 날이 있을까 싶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서로의 조건과 스펙을 따지느라 바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를 볼 때면 남들은 화려하고 재밌게 사는데 나만 점점 도태되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 쓸쓸하기만 하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남들과 비교 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문으로 불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스님들을 만나 삼포세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를 들어보자.

정리=이나나 기자 oasis1963@hyunbul.com



젊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스님들이 2030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왼쪽부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법인 스님(청년출가학교장·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헤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 정목 스님(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힘듭니까? 그것은 잘 돼가고 있기 때문이죠”

삼포세대 고민타파, 멘토 스님의 희망메시지

“안 되는 과정 반복 연습하면 곧 되는 방법 터득할 수 있어”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은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들에게 “많은 고민을 해도 어떠한 선택을 해도 좋다고 한다. 다만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임의식 없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괴로워 한다는 것이다. “자전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왜 넘어졌을까, 왜 안될까?’ 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이 곧 좌절이며 절망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연습하지도 않고 저절로 능숙해지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죠. 안 되고 넘어져도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는게 곧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곧 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및 임용고시와 각종 고시 등을 준비한다. 하지만 100% 합격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법륜 스님은 “시험에 한두 번 도전해서 실패했다면 다른 직업이나 길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며 “제가 학생 때는 화공학과가 가장 인기 높은 학교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뭘 하든지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미래를 저절로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며 상대방을 의식하고 삶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법륜 스님은 “남들만큼 비슷하게 따라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법륜 스님은 세상에 굴림당하지 말고 세상을 굴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은 늘 남을 쳐다보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굴리는 자가 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어떻게든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나만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을 기르세요.”

법륜 스님은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길게 보는 안목으로 자기 것이 되는 공부를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문제는 국제 정세는 우리 주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십 대 청춘에 걸맞게 연구해 나가야지 스펙만 갖췄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영어 시험 점수가 조금 높다고, 바로 취직이 잘되나요? 영어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영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두 발로 딛고 두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든 학문이든 자기 것이 돼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타인 시선에서 벗어나야”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

“어떻게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어느 새 부터인가 청년들의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꿈이 뭐지 몰라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하고 왜 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20~30대 청년들이 직업과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을 꿈으로 갖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괴로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겪었던 것과 같다. 법인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권력다툼, 전쟁, 물질적 욕구가 만연한 시대였다.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우리 청년들도 사회 경쟁 구조와 물질중심주의의 삶에서 탈피해 행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말하는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기쁨을 느끼려면 타인으로부터의 시선과 평가, 사회 통념에서 해방돼야 한다.

“상담을 해보면 요즘 청년들이 사회 통념과 부모에게 짓눌려 있음을 느낍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들, 즉 아파트 평수, 스펙 등에 괴달려 있어요. 또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삶을 살다보니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죠.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와 기성세대의 강요를 거역하는 삶을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것일까. 법인 스님은 “수처작주(處處作主)하라 했다.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얽매이지 않아 주체적이고 자유 자재하라는 것”이라며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도 마찬가지다. 마땅히 해야 할 옳고 바른 일은 어떠한 이해관계나 체면이나 감정 따위를 따지거나 개입시키지 말고 ‘무심하게’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스님은 삶을 감동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책을 많이 읽고 과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당장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축적 없는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이런 관심을 책으로 돌려보세요. 다양한 독서를 통해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상하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요소를 노트에 적어라. 의외로 많지 않다”

힐링 멘토 헤민 스님

‘힐링 멘토’로 떠오른 미 햄프셔대 교수 헤민 스님은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빛깔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빛깔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빛깔을 찾아서 당당히 여기세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남들처럼 따라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빛깔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고 사랑하세요.”

헤민 스님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불안해하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그럴 때 자신의 불안을 종이대다 써보자. 되게 말을 것 같지만 써놓으면 의외로 많지 않다”며 “그리고 써놓은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해결방법을 차근차근 찾아낸다.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길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하니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불안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스님은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저항하면 할수록 나를 괴롭힌다”며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머물게 해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민 스님은 무한경쟁과 비교하는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잠을 한 시간씩 일찍 자라고 귀띔했다.

“인터넷 한 시간 덜 하는 대신 한 시간 일찍 취침에 들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아침에 일할 때 늘도 오릅니다. 기도·산책·독서 등을 하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정리도 되고 고민하던게 ‘탁’ 하면

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세상은 그 자리에 있을 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BBS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놈의 세상!’ 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다.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은 “잘못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세상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어떠한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세상이 약속되고 있지만 그 속으로 헛바퀴 돌듯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잡힌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정목 스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많은 친구와 후원자로 그 사람을 돕는다”며 “위기의 상황을 지나서서야 살피보면 적이라 여겼던 그 상대도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2-43호 / 설립허가일 2012.4.9)
대법원등기등록번호 : 110321-0039311, 등기번호 : 003931

총무원장 직무대행 경담 각성

종책원장 무산 각운	국제문화원장 성 해
총회의장 성대 무공	기획조정실장 양범수
원로의장 능인 혜암	감찰원장 윤 산
	총무위원 상운 경본

종도일동

□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 사단법인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사단법인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

□ 재단법인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 종교세계신문사 □ 무교신문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412, 317, 378호 전화 02)2198-5022-4 팩스 02)2198-5025

■ 홈페이지 : www.kntga.or.kr / 이메일 jonggyo119@hanmail.net